

제 1 교시

언어영역

성명	
----	--

수험번호					2				
------	--	--	--	--	---	--	--	--	--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발표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여유 있는 삶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 ② 질문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군.
- ③ 예화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군.
- ④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였군.
- ⑤ 청중과 유사한 처지인을 밝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 (물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 ① 향약이 지향해야 할 이념은 무엇인가?
- ② 백성들의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③ 향약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④ 민생과 교화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
- ⑤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원인은 무엇인가?

3. (물음) 강연의 취지를 이해한 사람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재료로 만든 건강 보조 식품은 사지 말아야겠어.
- ② 되도록이면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겠어.
- ③ 좀 비싸더라도 원산지 농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커피를 구입해야겠어.
- ④ 멋진 광고를 하는 회사보다는 입소문으로 알려진 회사의 가구를 구매해야겠어.
- ⑤ 한철 입다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값싼 옷을 많이 사는데 그러지 말아야겠어.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여자가 이 인터뷰에서 질문할 내용을 정리한 메모이다. 인터뷰의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기존 저서와의 성격 차이 확인하기 ①
- 연구 과정에서의 어려움 확인하기 ②
- 핵심적인 개념의 의미 확인하기 ③
- 쟁점에 대한 의견 확인하기 ④
- 집필 의도 확인하기 ⑤

5. (물음) 이 인터뷰의 내용을 기사로 소개한다고 할 때, 기사의 제목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집] 저자와의 인터뷰

$$= (\quad)$$

- ①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수학적 결합
- ② 전통문화를 보는 다양한 관점
- ③ 문화와 자연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 ④ 문화, 과학을 딛고 철학과 만나다
- ⑤ 전통문화를 일관된 논리로 아우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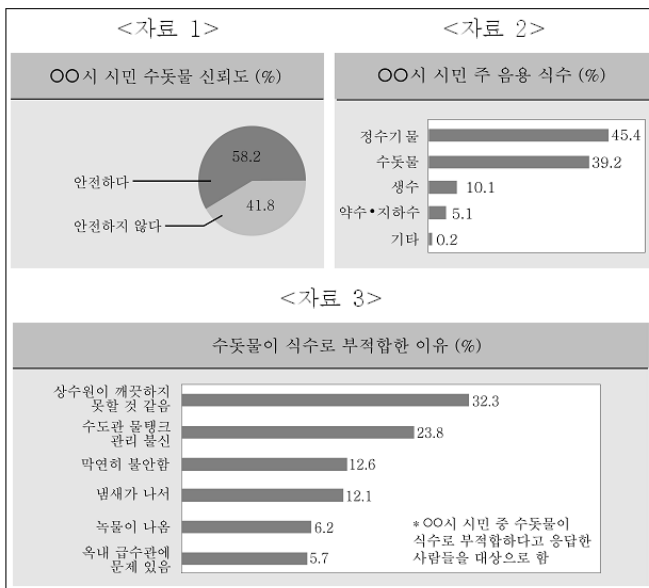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동물의 생태'를 소재로 하여 '바람직한 삶'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재	착안점	주제 구체화
↓	↓	↓
	사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 잇감을 사냥하지 않는다.	㉠
	개미는 자기 몸집보다 수십 배 나 큰 먹이를 여럿이 달라붙어 운반해 낸다.	㉡
	다람쥐는 눈 내리는 겨울철을 대 비해 먹이를 비축해 둔다.	㉢
	나비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애 벌레 시기를 거쳐야 한다.	㉣
	지렁이는 흙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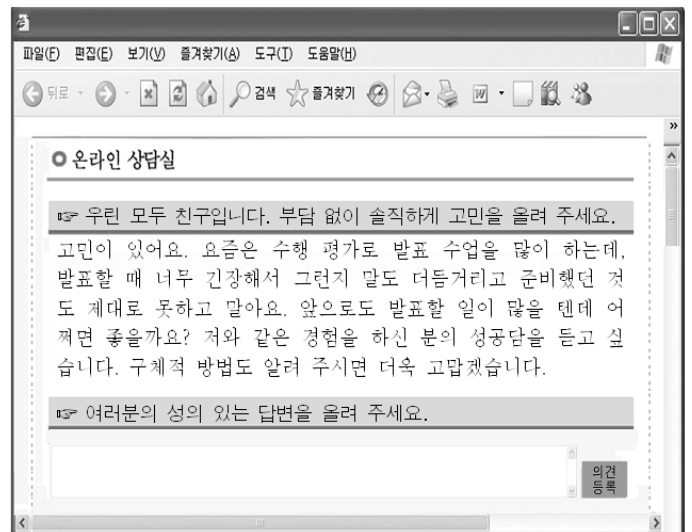
- ① ㉠ :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자제해야 한다.
 ② ㉡ : 어려운 일일수록 협동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③ ㉢ :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지녀야 한다.
 ④ ㉣ :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 ㉤ :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주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7. 다음은 '수돗물 정책'과 관련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자료1>을 활용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② <자료1>과 <자료2>를 활용하여, 상당수 시민들이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수돗물을 그대로 먹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③ <자료2>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3>의 내용을 제시한다.
 ④ <자료2>를 활용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와 지하수를 더 많이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⑤ <자료3>을 활용하여, 수돗물을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데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의견을 제시한다.

8. 다음은 '온라인 상담실'의 '열린 상담 코너' 화면의 일부이다. 상담 신청자의 요청 사항을 가장 잘 반영한 댓글은?



- ① 저는 화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결과가 좋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고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②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발표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나 잘 못하는 일이란두 가지 짝은 있는 것 아니겠어요?
 ③ 무대 공포증을 극복해야 하겠군요. 지하철이나 등산로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들 하더군요. OO님도 한번 해 보세요.
 ④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거리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OO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OO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⑤ 저도 발표력이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는 발표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9. <보기>의 (가)와 같은 개요를 작성했다가 (나)의 자료를 추가로 접하였다. (가)와 (나)를 종합하여 작성한 개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제목 : 나노 기술의 유용성

- I. 나노 기술과 나노 물질 소개
- II. 나노 기술의 다양한 이용 사례
 1. 주방용품
 2. 건축 재료
 3. 화장품
- III. 나노 기술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

(나) 나노 물질의 위험성 - 우리 몸의 여과 장치 그대로 통과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 동물들의 코 점막이나 폐의 여과 장치 등은 나노 입자보다 천 배나 더 큰 마이크로 입자를 걸러 내기에 적당하게 발달해 왔기 때문에, 나노 크기의 물질은 우리 몸의 여과 장치를 그대로 통과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귀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귀의 폐에 주입된 탄소나노튜브가 폐 조직을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귀에게 흡입시켰을 때 오직 나노 수준의 미세한 입자만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제목 : 나노 기술의 양면성 ①

- I. 나노 기술과 나노 물질 소개 ②
- II. 나노 기술의 양면성
 1. 나노 기술의 유용성 ③
 - 인간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2. 나노 기술의 위험성 ④
 -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
- III. 요구되는 태도 ⑤
 - 나노 기술의 응용 분야 확대

10. <보기>를 통해 탐구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 철수 : 무슨 일이 이렇게 많대?
영희 : 그러게, 저걸 언제 다 하나?

[B] 철수 : 영호 말로는 그 친구 아주 똑똑하데.
영희 : 나도 영호한테 들었어.

[C] 철수 : 전에 보니 그 친구 말 참 잘하데.
영희 : 나도 본 적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 ① [A]의 '-대'에는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있다.
- ② [B]의 '-대'는 '-다고 해'의 준말로 볼 수 있다.
- ③ [B]의 '-대'는 남이 한 말의 진위를 판단할 때 쓰인다.
- ④ [C]의 '-데'는 '-더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C]의 '-데'는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할 때 쓰인다.

11. <보기>를 고쳐 쓰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지님'과 '누림'

가난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평생 소원했던 대로 방이 매우 많은 집을 짓는다. 집이 완성된 후 그는 모든 방을 누리기 위해 한 방에서 한 시간씩 잠을 자고 다른 방으로 옮긴다. ㉠그 덕분에 그는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과연 이 사람은 자기가 지닌 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라면 모두 크건 작건 간에 집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다. 집은 지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방이 많은 집'이 아니라 '편안한 잠'이다. ㉢많은 것을 지니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요즘은 고급 아파트가 기초품처럼 광고에 등장하고 있고,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의 가치는 건물의 규모나 가격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궈 낼 수 있는 삶의 질에 의해 규정된다. ㉤아무리 지님이 중시되는 사회이므로, 어떻게 누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①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을 '그 바람에'로 수정한다.
- ②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을 삭제한다.
- ③ 문장의 연결을 고려하여 ㉢의 앞에 '그러면'을 첨가한다.
- ④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의 '좋은 집을 ~ 노력하고 있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를 첨가한다.
- ⑤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에서 '사회이므로'를 '사회라 하더라도'로 수정한다.

12. <보기>에 나타난 각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고려할 때, 잘못된 문장은? [1점]

< 보 기 >

- 자문(諮問)[명]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 자문하다[동] (...에게 ...을)
- 조언(助言)[명]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
- 조언하다[동] (...에/에게 ...을) (...에/에게 -고) (...에/에게 -고)
- 충고(忠告)[명]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름. 또 그런 말.
- 충고하다[동] (...에게 ...을) (...에게 -고)

- ① 정부는 그 기관에 경제 정책을 자문하였다.
- ② 나는 그녀에게 매우 아름답다고 충고해 주었다.
- ③ 쉽게만 판단하지 말라고 친구에게 충고했다.
- ④ 경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 ⑤ 의사는 그 환자에게 정밀 진단을 받아 보라고 조언했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① 오늘밤은 쪽쪽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쪽쪽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쪽쪽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쪽쪽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② 눈은 쪽쪽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웅양웅양 울을 것이다
-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나)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③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A]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며

④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에서

⑤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여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다) 춘사 8

취흥야 누얼다가 여홀 아래 누리려다
빅 먹여라 빅 먹여라
락홍(落紅)*이 흘러오니 도원(桃源)이 갓갑도다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인세(人世) 홍딘(紅塵)**이 언제나 그렸느니

하사 2

④ 년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청악립(靑靑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무심(無心)헌 빅구(白鷗)는 내 좃노가 제 좃노가

추사 1

물외(物外)에 조흔 일이 어부(漁父) 심에 아니러나
빅 떠라 빅 떠라
어웅(漁翁)을 울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스시(四時) 흥(興)이 흥가지나 추강(秋江)이 읊들이라

동사 8

몹그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석히고
빅 먹여라 빅 먹여라
⑥ 머흔*** 구름 헌티 마라 세상을 그리온다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파랑성(波浪聲)****을 얹티 마라 딘헐(塵喧)*****을 막노또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락홍: 낙화, 떨어진 꽃

** 홍딘: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머흔: 험한

**** 파랑성: 큰 물결과 작은 물결의 소리

***** 딘헐: 속세의 시끄러움

13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자연을 동경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가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체념이 드러나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14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골로 가자', '마가리에 살자'라는 표현에서 '나'의 소망을 느낄 수 있다.
- ② '눈'과 '흰 당나귀'의 흰색 이미지를 중첩시켜 순결함에 대한 '나'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쪽쪽' 내리는 '눈'과 '깊은 산골'은 '마가리'의 내밀함과 고립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혼자 쓸쓸히' 소주를 마시는 행위에서 '나'의 고독한 처지와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 ⑤ '나'가 '나타샤'를 사랑하는 상황이 '나타샤'가 '나'를 사랑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나타샤'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반전되고 있다.

15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감상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영석, <강상조어도>

배를 타고 낚싯대를 드리운 어부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인물을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비들이 어부로서의 삶을 흠모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으며, 많은 그림에 주된 소재로 등장한다. 어부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그림 속 배경인 자연은 선비들의 관념에 의해 이상화된 자연이라 할 수 있으며, 샷갯을 쓰거나 도롱이를 입은 소박한 차림은 어부의 삶의 성격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부의 이미지는 많은 문학 작품에도 나타나는데 (다) 역시 그러한 작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① '도원(桃源)이 갯갯도다'라는 표현은 <보기>에서 말하는 이상화된 자연의 모습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 ② '청약립(靑靑笠)', '녹사의(綠蓑衣)' 등의 소재를 통해 <보기>에서 말하는 '어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내 쫓는가 제 쫓는가'에서 자연에 대한 선비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물외(物外)에 조흔 일'에서 선비들이 '어부'로서의 삶을 흠모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그림마다 그렸더라'라는 표현에서 '어부'가 상징적 이미지로 즐겨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아아 나는 다시/ 충충계를 밟고/ 이층으로 올라간다./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곡예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팔막한 충충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 박복월, 「충충계」 중에서
- ②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중에서

- ③ 그날 밤 금계합 같은 눈이 내리던/ 오한(惡寒)의 땅에// 오늘은 발열(發熱)처럼 복사꽃이 핀다// 독이 타는 봄가뭄./ 아 독이 타는 봄가뭄./ 현기증(眩氣症) 나는 아지랑이만 일렁거리고.
- 김중길, 「황사현상」 중에서
- ④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중에서
- ⑤ 제 집을 향하는 많은 군중들은 시끄러이 떠들며, 부산—히 어둠 속으로 흩어져 버리고, 나는 공복의 가는 눈을 떠, 희미한 노동(路燈)을 본다. 떡엄떡엄 서 있는 포도 위에 잎새 없는 가로수도 나와 같이 공허하고나.
- 오장환, 「황혼」 중에서

17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현재와 미래가 교차되고 있는 시간이다.
- ② ㉠이 동상과 환상의 시간이라면, ㉡은 성찰과 다짐의 시간이다.
- ③ ㉠은 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은 동적인 느낌을 주는 시간이다.
- ④ ㉠과 ㉡ 모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환기되는 시간이다.
- ⑤ ㉠은 화자의 고뇌가 해소되는 시간이고, ㉡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이다.

18 ㉠ ~ ㉥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 ② ㉡ :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③ ㉢ : 사물을 인격화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 ④ ㉣ : 상반된 의미를 가진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 ⑤ ㉥ :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나 사건을 보도한다. 하지만 모든 사실이나 사건이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실과 사건 가운데 뉴스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자가 선별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나 사건을 보도의 틀에 맞추도록 재구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뉴스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영향력, 시의성, 변화, 저명성, 근접성, 신기성,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발생 후 오랜 시일이 지난 사건보다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일수록 뉴스로서의 가치가 커진다. 또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보다는 변화의 폭이 큰 것일수록,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유명 인사가 관련된 사건일수록 뉴스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리고 먼 곳에서 발생한 사건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 평범한 사건보다는 이상하고 기이한 사건이, 평화적인 상태보다는 분쟁을 야기하는 사건이 더 많은 뉴스 가치를 지닌다.

언론인들은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보도할 뉴스를 선택하고 뉴스 프로그램이나 신문을 제작한다. 그러나 특정한 사건이 뉴스 가치를 지녔다고 해서 무조건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이 뉴스로 수용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것은 통과되고 어떤 것은 차단되거나 변형되기도 한다. 일단 뉴스로 채택된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어떠한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 등에 따라 뉴스의 보도 양상이 달라진다. 이러한 과정을 ‘게이트키퍼(gatekeeping)’이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료나 상사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정치 집단, 정부, 광고주 그리고 수용자들의 요구나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뉴스가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사 스스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사건을 직접 취재하는 것은 기자의 기본 임무이다. 기자가 특정 취재원의 일방적인 정보로만 기사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성과 공정성 모두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나 여론을 기준으로 보도의 시각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때로는 여론 주도층의 의견이 중요한 경우도 있는데, 특히 여론 주도층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을 경우, 양쪽의 견해를 고루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정확성은 기사를 수용할 때 기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상반된 입장이 있는 사안을 다룬 기사를 볼 때 뉴스의 수용자는 양쪽 모두의 입장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때 상반된 입장의 두 주체를 명확히 파악했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반된 두 주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대립적인 두 주체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쟁점이 있는 경우 논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명확한 사실적 근거가 없는 기사는 단순한 홍보용 기사나 반대를 위한 반대의 기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 위 글의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한 것은? [1점]

- ① 뉴스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 ② 뉴스가 제작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올바른 수용 방법을 제시한 글이다.
- ③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하고 기자의 윤리 의식을 강조한 글이다.
- ④ 뉴스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글이다.
- ⑤ 뉴스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언론의 소명 의식을 강조한 글이다.

20.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방송국 뉴스 보도 관련 자료

[A] 취재한 기사의 목록

- (1) ◇◇노조 파업 - 한 달째 변화 없는 노사 대치
- (2) 연예인 K모 씨의 숨겨진 불우 이웃 돕기 선행
- (3)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황소
- (4) 평생을 불우 이웃을 위해 살아온 □□□ 옹
- (5) △△국 내전 발발, 오늘 아침부터 치열한 전투 개시
- (6) 독점 인터뷰, 내전 중인 C 국가의 반군 사령관, 앞으로의 계획 밝혀



[B] 보도하기로 결정한 기사 목록과 보도 순서

- (1) △△국 내전 발발, 오늘 아침부터 정부군의 반격 시작
- (2) 독점 인터뷰, 내전 중인 C 국가의 반군 사령관, 앞으로의 계획 밝혀
- (3) 연예인 K모 씨의 숨겨진 불우 이웃 돕기 선행
- (4)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황소

- ① [A]와 [B] 사이에는 ‘게이트키퍼’의 절차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어.
- ② [B] - (1)을 1순위 보도 기사로 선택한 것은 ‘시의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야.
- ③ [A] - (1), (4)가 보도에서 제외된 것은 ‘근접성’과 ‘갈등’의 요소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A] - (3)이 뉴스로 선택된 것은 ‘신기성’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 ⑤ [A] - (5)와 [B] - (1)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관점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21.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정한 보도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 ② 기자는 공정성보다 소신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나 여론은 항상 공정하다.
- ④ 뉴스 기사의 공정성 판단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⑤ 뉴스의 공정성 여부는 내용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2 위 글을 읽고 <보기>의 신문 기사에 대해 비판적인 수용 활동을 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의견은?

< 보 기 >

○○강 댐 건설 예정

환경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 댐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 부족의 해결을 위해 ○○강 댐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 여당 국회의원이 모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사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댐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기자 -

- ① 쟁점에 대한 기자의 개인적 견해가 제시되어 반대를 위한 대의 기사에 머무르게 되었다.
- ② 특정 취재원의 정보를 중심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 ③ 상반된 입장이 있는 사안을 다룬 것이므로 반대 측 입장의 근거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상반된 입장의 두 주체를 여당과 야당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이 계획을 주도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로 설정하는 것이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된다.
- ⑤ 찬성과 반대의 쟁점과 관련된 사실적인 근거가 균형 있게 제시되지 않아서 수용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종술은 최 사장의 저수지 감시원이 된다. 감시원 완장을 팔에 두른 종술은 그날부터 마을 사람을 위에 군림하려 한다. 급기야 종술은 최 사장 일행의 낚시질까지 금지하려다가 감시원 자리에서 쫓겨난다.

종술이가 또 노질을 멈추었다. 무슨 말인가를 할 듯하다가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엄니가 당부하시도만, 우리더러 정육이 데리고 어디든 멀리멀리 떠나서 살어 돌라고.”

종술이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겠다고 엄니한테 약속했어. 나는 자신이 있어. 어디 가서 무신 짓을 허든 넘부럽지 않게코롬 살아 널 자신 있단 말여.”

“씨잘디없는 소리 허지도 마! 대장부 사나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시라도 팔르고 죽어야지!”

마침내 종술이는 신경질을 부렸다. 그러나 부월이는 맞받아 화를 내지는 않았다. 남자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설을 지고 불 속이라도 뛰어돌 각오가 이미 서 있었다.

“자기 한 목숨 없어진다면 남지기 세 목숨도 없해지는 게여. 자기 한 목숨 살아나면 남지기 세 목숨도 덩으로 살아나는 게여.”

종술이가 갑자기 노를 난폭하게 젓기 시작했다. 부월이는 남자의 팔을 짊 붙들면서 소리쳤다.

“앞으로는 나가지 마! 물론 쪽은 위험하다고!”

“위험한 것 좋아하네!”

“안 순경하고 익삼 씨가 밤새껏 지키고 있단 말여! 눈이 뒤집힌 종술 씨가 밤중에 또 쳐들어와서 무신 짓을 저질러지 돌론다고 그럼시나!”

“지키는 것 좋아하네!”

부월이는 남자 못잖은 힘으로 남자의 손에서 노를 냉큼 빼앗아 버렸다.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두 사람 모두 물에 빠질 뻔했다. 찰싹거리는 물소리에 귀를 모은 채 부월이는 뗏목의 요동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자기한테는 완장이 그렇거나 소중한 것인가?”

남자는 잠자코 앉아 있기만 했다.

“세 식구 목숨하고도 안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 그 완장이여?”

“너는 임종술이가 아니여. 너는 김부월이여. 차고 탕겨 본 적도 없으니까 부월이는 완장을 몰라. 요 완장 뒤에는 법이 있어, 공 유수면관리법이.”

완장의 매끄러운 비닐 표면을 손톱 끝으로 톡톡 튕기는 소리가 났다. 부월이는 핫김에 노를 들어 뗏목 바닥을 킁 갈겼다.

“나도 알어! 눈에 보이는 완장은 기중 벨 볼일 없는 하빠리들이나 차는 게여! 진짜배기 완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자기는 지서장이나 면장 군수가 완장 차는 꼴 봤어? 완장 차고 탕기는 사장님이나 교수님 봤어? 권력 중에서도 아무 실속 없이 넘들이 흘린 뿌시레기나 좇어 먹는 핫질 중에 핫질이 바로 완장인 게여! 진수성찬은 말장 다 뒹전에 숨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완장을 차지란 말여! 우리 둘이서 힘만 합친다면 자기는 앞으로 진짜배기 완장도 찰 수가 있단 말여!”

“노나 어서 이리 줘!”

“태인댁이 어따가 패물 감춰 왔는가 나는 알어. 그것만 동땅 챙겨서 돈으로 바꿔치면 어디 가서 무신 장사를 허든 짧은 밀친은 아니여.”

“동땅 챙겨 가다니, 사람 도리로 그럴 수는 없는 게여!”

남자가 버트르 소가지를 부렸다. 몹시 자존심이 딸궂질한다는 투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다.

“결반쯤이라면 흑간 몰라도…….”

부월이가 그 말을 옹계 해석하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자마자 그녀는 하마터면 킁 하고 웃음을 흘릴 뻔했다. 웃는 대신 그녀는 남자한테 노를 돌려주었다.

표류하던 뗏목이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뗏목은 왔던 길을 되짚어 물가로 돌아가고 있었다. 부월이는 종이 쭉서서 진득이 앉아 있지를 못했다. 그녀는 뗏목 밖으로 팔을 뻗어 손 바가지로 물을 떠서 손가락 사이로 흘리는 장난을 하다 말고 불쑥 소리쳤다.

“종술씨, 그 완장 조개 나한테 벗어 줘!”

“뉘 헐라고?”

“얼매나 잘생긴 지집이길래 그렇게나 종술 씨를 사죽 못 쓰게 맨들었는가 한번 귀경이나 헐라고.”

남자가 못 이기는 척하고 벗어 주는 완장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한때나마 남자의 넋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물건이었다. 남자의 욕망과 오기가 그 완장 속에는 채워치런 질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완장에다 살짝 입을 맞춘 다음 남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시커먼 저수지 위로 집어던졌다. ㉠마치 저보다 젊고 잘생긴 시앗이라도 게저해 버린 듯이 온통 가슴이 후련했다.

- 윤홍길, 「완장(腕章)」 -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로 보여주는 기법을 통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감각적 묘사를 통해 공간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 ③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④ 사건에 대한 서술자를 장면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 ⑤ 시간을 역전적으로 배치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높이고 있다.

24 위 글에 나타난 공간과 소재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수지'는 '중술'의 욕망이 실현되고 좌절되는 공간이다.
- ② '물문'은 '중술'과 '부월'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③ '물가'는 '부월'과 '중술'의 암담한 미래를 암시하는 공간이다.
- ④ '햇독'은 '중술'과 '부월'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가 해소되는 과정과 대응하는 소재이다.
- ⑤ '노'는 '중술'과 '부월'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 보 기 >

- ㄱ. 쏘아붙이는 어투로 상대를 돌아붙이고 있다.
- ㄴ. 뜻밖의 질문을 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ㄷ. 다양한 조건을 내세워 상대를 회유하고 있다.
- ㄹ. 상대의 생각에 동조하면서도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 ㅁ. 상대의 생각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ㄹ

26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말은?

- ① 산 넘어 산이다
- ② 가던 날이 장날
- ③ 단길에 소뿔 빼듯
- ④ 열흘 붉은 꽃이 없다
- ⑤ 앞던 이 빠진 것 같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표현 전략으로 볼 수 있는 오브제는 그 양태의 다양성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특징은 어떤 사물을 그 사물이 갖는 본래의 용도나 기능에서 일탈시켜 다른 맥락에 놓는다는 것이다.

20세기 초 입체파의 대표적 작가인 피카소와 브라크는 기존의 회화 기법에서 벗어나, 신문과 잡지에서 오려 낸 조각들을 붙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이른바 '파피에 콜레'라는 콜라주 기법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피카소는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에서 레몬, 오이, 유리잔, 파이프, 신문 등이 나오는 정물화에 ㉠ 등나무 의자 무늬가 인쇄된 천 조각을 붙였는데, 화면 위에 실물을 부착하는 이 아이디어는 손으로 그리지 않고 주위의 사물들을 선택해서 작품을 만드는 현대적 오브제를 탄생시켰다.

작품에 사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 뒤샹의 '레디메이드' 이후 오브제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레디메이드)을 엉뚱한 장소에 갖다 놓음으로써, 그 사물을 그것이 원래 담당하던 기능에서 분리하여 순수한 미적 지각의 대상으로 변화시켰다.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범상한 것과 미적인 것의 위계적 구별 위에 서 있는 근대적 예술 제도에 대한 공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브제에 의해 예술 작품과 일상적 사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오늘날 예술이 될 수 없는 사물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사물은 예술가의 손에 들려 미술관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저 있는 곳에서 예술가에게 작품으로 선언되는 것만으로도 예술이 된다.

원래 오브제의 전략은 사물의 본래 용도를 폐기함으로써 그것을 미적 대상으로 변용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물이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예술이 되는 작품들까지 나오고 있다. 초버닝은 고속도로에서 윈스터 시(市)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 '조각 프로젝트 윈스터 1977'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전시회를 알리는 플래카드가자 동시에 그가 출품한 예술 작품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설치미술에도 나타나고 있다. 설치미술은 미술관, 건물, 자연 등 현실의 특정 공간을 그 자체로 하나의 오브제로 보고 이를 작품화하는 것이다.

이제 오브제는 단순히 사물, 인공물에 ㉣ 머물지 않는다. 입체파와 함께 출현한 현대적인 오브제는 회화의 일부로 취급되었던 최초의 시도에서 멀리 벗어나 그 자체로 독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영역과 개념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브제는 사물을 본래의 기능과는 다른 맥락에 놓는 것이다.
- ② 입체파 작가에 의해 현대적인 오브제가 출현하였다.
- ③ 사물은 예술가의 선언만으로도 작품이 될 수 있다.
- ④ 설치미술은 현실의 특정 공간을 작품화하는 것이다.
- ⑤ 뒤샹의 레디메이드로 인해 근대적 예술이 시작되었다.

28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한 작가가 시청 건물 외벽에 설치한 작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가는 시장에서 구입한 천들을 서로 엇갈리게 늘어뜨려 놓고 ‘행복한 실뜨기’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것이 예술 작품이라는 말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의아해 하였다. 한편 미술계에서는 이 작품을 두고 일상의 건물을 새롭게 바라본 참신한 작품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단지 작가의 가볍고 즉흥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 ① 오브제의 현실적 효용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 할 수 있어.
- ② 오브제에 의해 예술과 사물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어.
- ③ 공공건물 자체를 작품의 대상으로 삼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 ④ 작품의 제목이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 할 수 있어.
- ⑤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작가가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 주는군.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면 구성 요소의 하나로 종속되어 있는 오브제이다.
- ② ㉡은 범상한 것과 미적인 것이 위계적으로 구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은 일상의 공간에 놓인다면 평범한 일상의 사물로 생각될 수 있다.
- ④ ㉣과 달리 ㉡은 사물의 본래 기능을 잃지 않고 있다.
- ⑤ ㉠에서 ㉣, ㉣으로 진행하면서 오브제의 영역과 개념이 확대되었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한 말은? [1점]

- ① 국한(局限)되지
- ② 개입(介入)되지
- ③ 정착(定着)되지
- ④ 규정(規定)되지
- ⑤ 제어(制御)되지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 부분의 이야기] 어느 봄날 유영이 수성궁에 놀러 가서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서는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그녀의 애인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대군의 문중에 출입하던 김 진사를 보고 연정을 느낀 운영은, 궁궐 밖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여러 궁녀들의 도움으로 김 진사와 밀회를 하다가 발각되어 문초를 당한다.

“대군이 보기를 마치고 또 한 번 자란의 초사를 다시 펴고 보시는데 노염이 좀 풀린 것 같으므로 소옥이 꿇어앉아 울면서 고하였습니다.

‘전날 빨래하러 갈 때 성 안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저의 의견이었으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청하기에 제가 그 뜻을 안타까이 여겨 군의(群議)를 물리치고 따랐사옵나니. 운영의 해결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사옵고 운영에게 있지 아니하오니, 저의 몸으로써 운영의 목숨을 이어 주시옵소서.’

이에 대군의 노여움이 좀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다 가두고 다른 궁녀들은 다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으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진사는 붓을 잡아 기록하고 운영은 옛 일을 당겨서 이야기하였는데 매우 자상하였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슬픔을 스스로 역해하지 못하다가, 운영이 진사보고,

“이로부터 이하는 낭군님께서 이야기하셔요.”

하고 말했다. 이에 진사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중략>

“이런 후로부터 저는 세상일에 뜻이 없어 목욕하여 몸을 정결히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고요한 곳에 누워 나홀로 먹지 않았지요. 마침내 한 번 깊이 탄식하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 그칠 줄을 몰랐다. 유영은 위로의 말을 해 주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이 없겠소. 원수인 풍도 이미 없어졌고 통분함도 사라졌을 것인데, 어찌 슬피하여 마지않는가. 다시 인간에 나오기를 얻지 못하여 한탄인가.”

김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례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다 같이 원한을 품고 죽었기로 염라대왕이 죄없음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간에 태어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낙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은데, 하늘에 천상의 낙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런으로써 인간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슬피한 것은 대군이 한번 돌아가시자 고궁에 주인이 없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취가 이르지 아니하기로 그랬을 뿐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를 겪은 후로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옥 같은 섬돌, 분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섬돌 위에 피어 있는 꽃만이 향기롭고 뜰에는 풀만이 갈리어 봄빛을 자랑할 뿐이니, 그 옛날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인사의 변하기 쉬움이 이와 같거늘, 다시와 옛일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인가.”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 선인으로서 오래도록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루는 상계에서 태청궁(太淸宮)에 앉아 저에게 옥동산의 과실을 따 오라 하기로, 제가 반도(蟠桃)를 많이 따가지고 와서 운영과 같이 먹다가 들켜 진세에 적강되어 인간의 괴로움을 겪고후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건의 허물을 용서하

사 삼청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향안(香案)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하였습지요. 돌아가는 이때를 타서 바람의 수레를 타고 다시 진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와 보았을 뿐입니다.”

김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물을 뿌리면서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했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 버린들 우리들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요. 또 땅이 늙고 하늘이 거칠어진들 우리들의 원한은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존군(尊君)과 서로 만나 이와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속세의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바라건대 존군께서는 이 원고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시와 영원히 전해 주시옵고, 경솔한 사람들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김생은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대어 시 한 수를 읊었다.

[A] 꽃 떨어진 중중에 연작이 날고,
봄빛은 예와 같건만 주인은 간 곳 없구나.
중천에 솟은 달은 차기만 한데,
아직 푸른 이슬은 우의를 적시지 않았네.

운영이 받아서 읊었다.

[B]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천년 단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오늘 저녁 예와 놀며 옛 자취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은 수건을 적시네.

이때 유영도 또한 취하여 잠깐 누워 있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 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있었다. 유영은 쓸쓸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신책(神冊)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속에 감추어 두고 때때로 내어 보고는 망연히 자실하여 침식을 전폐했다. 후에 명산을 두고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마친 바를 알 수 없다고 한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31-32】 <보기>를 참고하여 31번과 32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이 작품의 내용 구조는 (가) 속에 (나)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 유영과 김 진사, 운영의 만남과 대화

(나) :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 이야기

3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서술자는 ‘유영’을 전지적 시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유영’은 ‘김 진사’와 ‘운영’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 ③ (나)의 ‘김 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가)의 ‘유영’이다.
- ④ (나)에서 ‘김 진사’와 ‘운영’은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나)에는 없는, ‘김 진사’와 ‘운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2.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나)에서 ‘소옥’은 ‘운영’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가)에서 ‘유영’은 ‘운영’과 ‘김 진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였다.
- ③ (나)에서 ‘운영’은 대군의 노여움이 다소 누그러졌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④ (가)에서 ‘운영’과 ‘김 진사’는 인간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
- ⑤ (나)에서 ‘김 진사’는 ‘운영’의 죽을 이후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었다.

33. [A]와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김 진사가 말했던 인간사의 무상감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다.
- ② [A]의 차가운 ‘달’의 이미지는 비애의 감정을 반영한 것이겠지.
- ③ [B]는 [A]와 같은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면서 [A]의 시상을 이어받고 있어.
- ④ [B]의 ‘봄빛’은 비극적인 운명의 아픔이 반영되어 있어 애상적인 느낌을 주는군.
- ⑤ [A]와 [B]에는 공통적으로, 지난 삶의 자취를 돌아보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3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옛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야기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금기의 위반 모티프** :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어긴다는 내용. 금기에 대한 위반은 호기심,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 억압된 충동의 발산, 자유의지에 대한 열망 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 **혼사 장애 모티프** :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랑하는 남녀의 혼사가 지연되거나 좌절된다는 내용. 때로 두 남녀의 결연을 위한 통과의례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 **적강 모티프** : 주인공이 원래 천상의 존재인데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내용. 주인공이 적강(謫降)한 존재라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그 신분의 비범함을 의미하지만, 장차 주인공에게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 ① ‘대군’이라는 존재는 ‘김 진사’와 ‘운영’의 혼사 장애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군.
- ② ‘김 진사’와 ‘운영’이 반도를 따 먹는 것은 금기의 위반 모티프인 것 같다.
- ③ ‘유영’이 죽은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나는 것은, 장차 벌어질 사건을 예고하는 적강 모티프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
- ④ 천상에서의 문제가 지상 세계로의 적강을 거친 후에 해결되는 것을 보면, 이 작품에서 혼사 장애는 일종의 통과의례인 셈이지.
- ⑤ ‘김 진사’와 ‘운영’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쫓겨난다는 내용에서 금기의 위반 모티프와 적강 모티프가 혼합된 양상을 볼 수 있어.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 연구에서 말소리 분석의 기초적인 단위로 삼는 것이 음성과 음운이다.

음성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성대를 거쳐 입 안이나 콧속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음성적 자질이 나타나게 된다. 물리적으로 볼 때, 음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의 음성이라도 말할 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음운은 의미를 변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언어 사용자들이 음성 중에서 해당 언어의 의미 구별에 필요한 것만을 뽑아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음운이다. 그러므로 음운은 의미의 구별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ㄷ/와 /ㅌ/는 별개의 음운인데, 국어 화자가 이러한 차이를 모른다면, ‘발이 아프다’와 ‘팔이 아프다’를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음성적 자질은 각 언어의 음운 체계에 선택적으로 반영된다. 가령, 영어 사용자는 한국인이 발음하는 ㉠ [바자]의 /ㄷ/를 무성음 /p/로 인식하고 ㉡ [자바]의 /ㄷ/는 유성음 /b/로 인식하지만, 대개의 국어 화자는 두 /ㄷ/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국어 음운 체계에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라는 음성적 자질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어 화자는 /ㄷ/과 /ㅌ/ / ㅍ/의 차이를 쉽게 알아차리지만 영어권 화자는 대개 /ㄷ/과 /ㅌ/ / ㅍ/를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영어의 음운 체계에 그러한 음의 대립을 유발하는 음성적 자질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언어마다 음운 체계에 반영되는 음성적 자질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언어에서 사용되는 음운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음운은 주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글, 들, 돌, 불, 술’을 보자. 이들은 첫소리에 쓰인 자음이 어떤 음이냐에 따라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된다. 이처럼 의미를 구별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ㄱ/, /ㄷ/, /ㄴ/, /ㄹ/, /ㄷ/, /ㄴ/ 등의 자음은 국어의 음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발, 벌, 불, 불’은 어떤가? 이것들은 가운데소리로 쓰인 모음이 어떤 음이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ㅏ/, /ㅑ/, /ㅓ/, /ㅕ/ 등의 모음도 역시 의미 차이를 유발하는 국어의 음운에 속한다. 단어나 음절 등에서 자음과 모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음되는데, 이들을 분절음, 또는 음소(音素)라고 한다.

한편 ‘소리의 길이, 높이, 강약’ 등도 의미 구별에 기여하는 음운에 해당한다. ‘하늘에서 눈이 온다’고 할 때의 ‘눈’은 긴 소리 [눈:]으로 발음이 되고, ‘눈이 따갑고 아프다’고 할 때의 ‘눈’은 짧은 소리로 발음되는 것이 그 예이다. 소리의 길고 짧음은 문자로 적히지 않지만 그것 역시 말소리의 한 종류임은 틀림없다. 소리의 ‘높이’와 ‘강약’도 마찬가지이다. ‘소리의 길이, 높이, 강약’ 등은 자음과 모음에 얹혀 나타나는데, 이들을 초분절음, 또는 운소(韻素)라고 한다. 음운은 이러한 음소와 운소를 합친 개념인 것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언어학에서 음성과 음운은 말소리 분석의 기초적 단위이다.
- ② 음성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다.
- ③ 음운 체계에 반영되는 음성적 자질은 언어마다 다르다.
- ④ 대부분의 언어에서 음운은 주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⑤ 소리의 길이, 높이, 강약 등도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있다.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음성은 서로 다르나 국어 화자에게는 같은 음운으로 인식된다.
- ② 음성은 서로 다르나 영어 화자에게는 같은 음운으로 인식된다.
- ③ 음성이 서로 같으나 국어 화자에게는 다른 음운으로 인식된다.
- ④ 음성이 서로 같으나 영어 화자에게는 다른 음운으로 인식된다.
- ⑤ 음성도 서로 같고 국어와 영어의 화자 모두에게 같은 음운으로 인식된다.

37. 위 글을 읽고 <보기>의 대화를 대상으로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논의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상황 1> 첫눈이 오는 날 아이와 엄마의 대화

아이 : 와! [눈] 내린다.
엄마 :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해야지.

○ <상황 2> 남자가 여자에게 게 요리를 먹자고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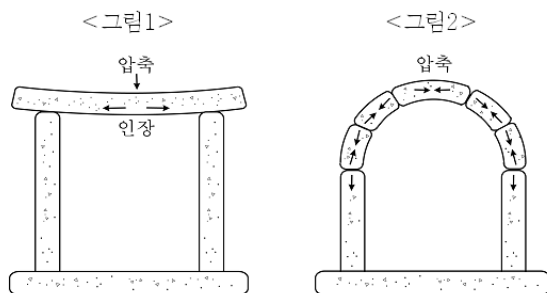
남자 : 우리 [개:] 요리 먹으러 갈까요?
여자 : [개:] 요리인가요? [개:] 요리인가요?
남자 : 바다에 사는 [개:]요.

- ① <상황 1>에서 [눈:]에는 ‘소리의 길이’라는 운소가 얹혀 있다.
- ② <상황 1>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말소리는 문자로 적히지 않는다.
- ③ <상황 2>에서 남자의 [개:]에는 ‘음소’와 ‘운소’의 요소가 모두 들어 있다.
- ④ <상황 2>에서 ‘여자’는 [개:]와 [개:]의 음운상 차이를 모르고 있다.
- ⑤ <상황 1>의 ‘아이’는 ‘운소’의 실현에 문제가 있고, <상황 2>의 ‘남자’는 ‘음소’의 실현에 문제가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조물의 모양은, 재료의 특성과 그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에 대한 대응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건축물에 석재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석조 건축물들은 주로 기둥 위에 보를 얹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보 자체의 무게로 인해 <그림1>처럼 보의 상부에는 압축력이 걸리고 보의 하부에는 인장력이 걸리게 된다. 석재는 압축력에는 강하지만 인장력에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보에는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인들은 건축물에 굵은 기둥들을 좁은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이에 비해 로마 시대에는 석재, 벽돌 등을 쌓아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아치와 둥통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는 <그림2>에서처럼 재료가 주로 압축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중을 견디는 힘이 강하다.



달구지와 자전거의 바퀴도 재료의 특성과 힘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먼저 달구지 바퀴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달구지 바퀴는 비교적 압축 강도가 높은 나무로 만드는데, 바퀴의 중심부에 있는 허브의 홈이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중심축에 끼워져 있다. 그래서 달구지에 가해지는 하중은 압축력의 형태로 중심축을 거쳐 바퀴로 전달된다. 따라서 바퀴살은 압축력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단면적이 넓게 만들어지고, 허브와 바퀴 테 사이에 수직으로 세워진다.

자전거의 경우, 안장에 사람이 앉을 때 생긴 압축력은 안장에 연결된 프레임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인장력으로 바뀐다. 프레임이 양쪽 바퀴의 허브에 연결되어 있어서 바퀴살에도 주로 인장력이 걸리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의 바퀴살은 인장력이 강한 강철 와이어를 써서 만든다. 가느다란 강철 와이어는 그것이 길이 방향으로 압축력이 가해지면 쉽게 구부러지지만, 자전거의 바퀴살은 인장력이 걸리는 구조로 허브와 바퀴 테 사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편 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체인에 의해 연결된 허브가 회전력을 받아 바퀴를 움직인다. 따라서 회전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바퀴에 전달된다. 이렇게 바퀴가 회전하도록 당기는 힘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바퀴살은 허브에 수직 방향이 아니라 약간 비껴진 위치에서 바퀴 테까지 연결되어 있다. 반면 달구지는, 허브의 회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나 말이 수평 방향으로 끄는 힘에 의해서 바퀴가 움직인다. 따라서 달구지 바퀴의 경우는, 바퀴살을 허브에서 바퀴 테까지 수직으로 연결하여 압축 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38 위 글의 서술 전략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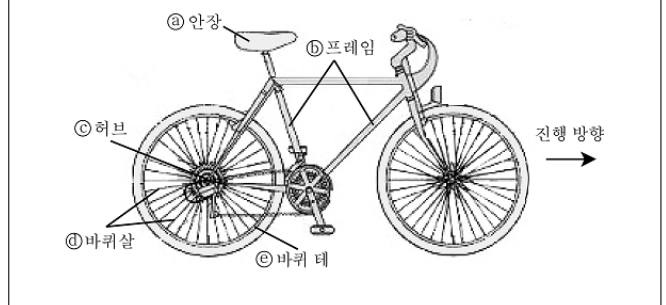
< 보기 >

- ㄱ.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 ㄴ. 여러 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는다.
- ㄷ.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내용을 설명한다.
- ㄹ. 대상들 간의 차이점을 대비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9 위 글의 내용을 참조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① ㉠에는 사람의 무게로 인한 압축력이 작용한다.
- ② ㉡는 압축력을 인장력으로 바뀌어서 바퀴에 전달한다.
- ③ ㉢은 페달에서 받은 회전력으로 바퀴를 돌린다.
- ④ ㉣에는 주로 인장력이 작용한다.
- ⑤ ㉤에는 주로 수평 방향의 압축력이 작용한다.

40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구조가 다르면 견디는 힘이 다르겠군.
- ② 기둥들을 좁은 간격으로 배치할수록 보에 균열이 덜 발생하겠군.
- ③ 달구지에 실린 짐이 무거울수록 바퀴살에 가해지는 압축력이 커지겠군.
- ④ 둥통 구조인 석굴암이 기둥에 보를 얹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면 더 잘 보존될 수 있었겠군.
- ⑤ 달구지와 자전거의 바퀴 모양이 다른 것은 대응해야 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몸에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에는 선천성 면역과 적응성 면역이 있다.

적응성 면역 반응은 활성화된 B세포와 T세포에 의해 이루어진다. B세포는 병원체의 특정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병원체를 공격하고 다른 세포들이 병원체를 공격하도록 표지를 하기도 한다. T세포는 면역 반응 전반을 조절하고 병원체를 물리치기도 한다. 특히 일부 T세포는 B세포나 다른 T세포의 활성화를 돕기도 한다. 최초의 감염이 있는 다음에는 침입한 병원체에 대한 기억을 가진 B세포와 T세포들이 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은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오면 즉각 공격하여 그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의 감염을 기억하는 능력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질병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면역계에서는 이러한 적응성 면역이 독보적인 스타였다. 교과서들은 B세포나 T세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고 선천성 면역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선천성 면역은 우리 몸이라는 성(城)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그저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고 진짜 방어는 성안에 있는 B세포와 T세포가 병원체와 교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적응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데에 선천성 면역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벽 곳곳에 존재하는 보초병들이 침입한 병원체에 대응하여 싸우며 경계 신호도 보냄으로써 성안의 군대가 대규모로 공격할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병원체를 기억하고 있는 세포들이 즉각 대응하는 적응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에는 선천성 면역 반응이 개시된다. 처음 접한 병원체가 체내에 들어오면 대식 세포나 수지상 세포 표면의 톨 유사 수용체가 병원체와 단단히 결합한다. 이렇게 톨 유사 수용체가 병원체와 결합하면 대식 세포와 수지상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분비된다. 이 단백질은 다른 세포들의 유입을 촉발한다. 이때 주로 유입되는 것은 단핵구인데, 이것은 성숙하여 대식 세포가 된다. 대식 세포와 수지상 세포는 병원체를 공격하여 절단한 조각을 자신의 표면에 걸고 다니며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 신호가 사이토카인과 더불어 B세포와 T세포를 활성화시켜 적응성 면역계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 홀대 받던 조연의 작용으로 ㉡ 잘난 주연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선천성 면역과 적응성 면역은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체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하나의 시스템의 서로 다른 부분이다. 이 두 시스템 사이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에 의해 전체 면역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4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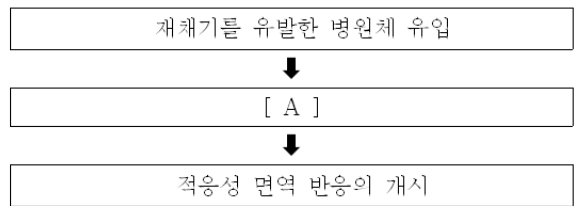
- ① 톨 유사 수용체는 B세포와 T세포의 표면에 존재한다.
- ② T세포는 면역 반응 전반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 ③ B세포와 T세포는 체내에 유입된 병원체를 공격한다.
- ④ 적응성 면역 반응은 활성화된 B세포와 T세포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⑤ 선천성 면역 반응의 중요성은 최근에 와서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42. <보기>의 (나)는 (가)의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어나는 면역 반응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마자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어떤 병원체 때문에 재채기가 날까 생각하기 시작할 무렵 이 여성의 면역계는 벌써 행동에 들어가고 있다. 이 여성의 몸에 침입한 병원체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것이었다.

(나)



- ① 톨 유사 수용체가 병원체와 결합한다.
- ② 대식 세포와 수지상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 분비된다.
- ③ 사이토카인은 대식 세포가 되는 단핵구의 유입을 촉발한다.
- ④ 대식 세포와 수지상 세포가 병원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 ⑤ B세포가 특정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병원체를 공격하여 제거한다.

43. ㉠과 ㉡에 대응하는 대상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 | | ㉠ | ㉡ |
|------------|---|---------------|
| ① 선천성 면역계 | - | 적응성 면역계 |
| ② 톨 유사 수용체 | - | 사이토카인 |
| ③ 선천성 면역계 | - | 사이토카인 |
| ④ B세포와 T세포 | - | 적응성 면역계 |
| ⑤ 단핵구 | - | 대식 세포와 수지상 세포 |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터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 양 (편지를 윤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윤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깐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된지도 모르고 그냥 실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실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갈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 번 볼 수조차 없어.

자 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갈에게 주면, 외눈갈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댄 나중엔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 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 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뉘지거든.

자 양 부속품 상자는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 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바뀌어진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 링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신기한 기계죠!

[A]

운전수 (다링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 링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뀌진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네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 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런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던져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 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런 서류들은 됩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dumb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 이강백, 「북어대가리」 —

44 위 글의 '편지'와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양'에게 '서류'는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다.
- ② '운전수'에게 '서류'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다.
- ③ '편지'는 '자양'과 '운전수'가 연장을 벌이는 요인이다.
- ④ '자양'에게 '편지'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편지'는 '운전수'의 권위에 대한 '자양'의 도전권을 의미한다.

45 <보기>에 근거할 때,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우리는 이 작품에서 현대 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 ① 이름 대신 딸기코, 외눈갈, 노름꾼 등의 별명으로 부르는 데서, 익명화된 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②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싣고 가는 운전수를 통해,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 ③ 창고 안에서의 성실함이 창고 밖에서는 큰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개성을 잃고 획일화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④ 상자의 운송을 맡고 있으면서도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말에서, 자신의 영역 외에는 알지 못하는 파편화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 ⑤ 접수반장과 분배반장이 같은 정거장의 양쪽에서 일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 번 볼 수조차 없는 현실은, 소통이 단절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6 <보기>는 '다링' 역을 맡은 배우에게 연출가가 말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다링은 인생은 대충대충, 그리고 즐겁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며칠 전 다링이 자양의 창고에 가서 같은 말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기계와 폭탄 이야기를 똑같이 했잖아요. 그때 당황하던 자양을 보며 다링이 즐거워했죠. 그러니 [A]에서는 () 투로 말하세요.

- ① 창고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양을 비난하는
- ②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자양을 동정하는
- ③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 계속해서 마음을 줄이는 자양을 조롱하는
- ④ 그 동안의 노력으로 보아 그 정도 실수는 용서가 된다면 자양을 위로하는
- ⑤ 창고지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자양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질책하는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인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지식들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데카르트는 모든 지식의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철학적 반성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방법적 회의’라고 부른다.

데카르트는 지식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경험적 원천을 통해 파악된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고, 둘째는 내적인 성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부의 마음 상태에 대한 내성적 지식이다. 셋째는 수학적 지식인데, 이는 외부 경험이나 내성을 통해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경험적 지식이다.

경험은 때때로 우리를 기만하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경험적 지식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경험은 언제나 우리를 속일 가능성이 있다. 가령 돌이 담긴 컵 속에 막대기를 넣으면 막대기는 굽어 보이지만, 실재하는 막대기는 굽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은 외부 세계의 실재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우리에게 나타난 바인 현상만을 보여 줄 뿐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데카르트의 논점은 우리 내부의 마음 상태에 대한 내성적 지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런 지식은 틀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분명히 나는 아프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착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성적 지식 역시 지식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험에 근거한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내성적 지식뿐만 아니라 비경험적 원천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수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데카르트는 의심한다. 우리는 ‘ $2+3=5$ ’라고 당연하게 ㉡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 $2+3=6$ ’인데 인간이 계산할 때마다 악신(惡神)이 장난을 하여 ‘ $2+3=5$ ’라고 믿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악신의 존재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수학적 지식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 많은 지식을 배운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보여주었듯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들 중에서 우리 스스로가 분명하게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가 당연하게 지식으로 간주하였던 경험적 지식이나 내성적 지식, 나아가 수학적 지식조차도 지식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이란 무엇이며,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단서를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할 일 없는 철학자의 단순한 소일거리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지식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철학을 하고자 원하는 자뿐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이성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방법적 회의가 필요하다. 그저 신념과 믿음에 불과한 것을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를 내세운다면 이는 자신의 독단적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억압에 불과하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4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데카르트 철학의 의미를 밝히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소개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③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④ 데카르트 철학에서 방법적 회의가 갖는 위상을 규명하고 있다.
- 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다른 방법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48. ‘방법적 회의’에 주목하여 격언을 만들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것을 분류하라. 그리고 통합하라!
- ② 현재를 반성하라. 그리고 경험을 존중하라!
- ③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 ④ 자신을 믿으라. 그러나 독선에는 빠지지 말라!
- ⑤ 존재를 회의하라. 그러나 허무에는 빠지지 말라!

49.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림에 그려진 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과 다르다.
- ② 같은 영화를 보고도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 ③ 같은 나무라도 성장 환경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다.
- ④ 볼록거울에 비친 얼굴은 실제의 얼굴의 모습과 다르다.
- ⑤ 똑같이 두통을 앓아도 통증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50. ㉡과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 ① 그는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
- ②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설렌다.
- ③ 건강을 생각하여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 ④ 다음 만남에서는 청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때로 삶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